

‘성범죄·조폭·마약’ 치안 적신호

신상공개 성범죄자 해마다 증가 ‘불안’

광주·전남 매년 100~150명 조폭 적발

성범죄자들이 갈수록 늘고 조폭·마약·도박사범까지 활개를 치면서 광주·전남 치안에 적신호가 켜졌다.

6일 경찰청 국가자료를 보면 광주·전남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대상자는 지난 8월까지 4,619명으로 지난 2014년 1,400명에 비해 3배 이상 폭증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 1,994명·2016년 2,551명·2017년 3,247명·지난해 4,164명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성범죄자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신상정보를 허위로 제출해 입건된 성범죄자도 상당수 확인됐다. 관내 소재불명 성범죄자는 2014년 3명·2015년 2명·2016년 5명·2017년 6명·지난해 7명이다.

신상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미제출 및 거짓신고로 형사입건된 성범죄자는 2016년 114명·2017년 89명·지난해 147명·올해 8월까지 85명이다.

이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전남 인력은 전무해 관련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경찰 인력에선 각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성범죄자들의 관리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성범죄 강력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의 전담인력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폭 범죄도 갈수록 기승을 부려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최근 4년(2015-

2018년) 동안 경찰에 단속된 조폭은 광주 590명·전남 398명으로 모두 988명이다. 이는 해마다 100명에서 150명이 검거된 수치다.

특히 광주는 2017년 178명에서 지난해 115명의 조폭이 검거돼 조폭범죄가 감소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올해 8월까지 검거된 조폭은 126명으로 또다시 증가세를 나타내 수사기관의 적절한 대응 및 범죄 예방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마약사범 역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2017년 123명·지난해 158명·올해 7월 기준 157명 등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돼 증가세가 뚜렷하다.

전남은 지난해 162명, 올해 7월까지 175명이 붙잡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져 10~20대 마약사범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2015년 94명에 불과하던 10대 마약범죄가 지난 7월까지 114명으로 늘고, 20대는 969명에서 60% 증가한 1,553명으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도박범죄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 5년(2014~2018년) 동안 검거된 도박사범은 광주 2,739명·전남 6,796명으로 모두 9,535명이다. 전남은 도박사범 가운데도

박게장 재범률이 4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에 관한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며 “성범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급히 전담인력 등을 편성, 안전한 치안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폭범죄가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검·경에서도 급변하는 범죄유형에 적절한 대응 및 예방책이 절실하고, 갈수록 늘고 있는 동네조폭 역시 집중 관리 및 근절 방안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광민 기자



교통·생활안전 퀴즈대회 5월 오전 광주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생활안전 퀴즈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정답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대학 연구비 부정사용 여전

광주·전남 3곳...목포대, 8억3천만원 환수

광주·전남지역 일부 대학들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달 24일까지 총 95건의 연구 용도 외 연구비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환수 대상 금액은 44억6,400만원이었다.

95건의 부정행위 중 57건은 국공립 대학으로, 광주·전남에서는 3개 대학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목포대가 모두 6건으로, 환수 금액만 8억3,264만원에 이른다. 이어 순천대는 4건에 1,441만원, 광주과기원은 1건에 1,380만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목포대는 2014년 여교수가 연구 활동에 참여한 학생 수를 부풀리고 연구자문을 구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보조연구비를 받아 쟁긴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으며 2012년에도 대규모 연구부정 의혹으로 50명 안팎의 교수가 국가보조금 유용과 횡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다.

광주과기원의 한 교수도 연구에 참여한

제자들의 통장으로 입금된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연구실 공통경비로 쓰겠다”며 돌려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연구실 캐비닛에 보관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순천대에서도 2년 전 연구비 부당사용 의혹이 일면서 검찰이 해당 연구실과 실험실, 학과 조교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학가에 만연된 연구부정 행위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 애시도 광주과학기술원은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에서 전국 36개 국공립 대학 중 33위, 등급으로는 최하위인 5등급을 차지했다.

목포대에 연구 및 행정 청렴도에서 2017년 4등급을 차지하는 등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과 횡령이 끊이지 않는 것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주무부처와 연구재단은 연구비가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전남대 스마트아쿠아팜 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가 전통 수산 양식 산업에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이 융·복합된 식·박사급의 연구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에 ‘스마트 아쿠아 팜 협동과정’을 국내 최초로 신설했다.

6일 전남대에 따르면 내년 3월 개강할 ‘스마트아쿠아팜 협동과정’은 빅데이터·AI 기반 스마트 양식을 도입해 주요 양식품목의 생산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 오는 2030년까지 10조원 상당의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아쿠아팜 4.0 추진 전략’과 부합된다.

협동과정 교수진은 해양수산부 수산전

문인력양성사업단인 스마트수산양식연구센터(센터장 김태호 교수)에 참여하는 수산과학과, 수산생명의학과, 문화컨텐츠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의공학과 등 다양한 전문기틀로 구성됐다.

또 양식 시스템 설계, 스마트 피쉬 웰스케어 및 영상 진단, 스마트 수질 관리 및 공정 제어, 데이터 기반 생물 최적 관리 및 기계 학습 등 최신 융·복합 기술의 교육 과정이 도입된다.

학생들에게는 국가연구비가 지급될 예정이며, 노르웨이 스타방게르대학 등 해외 선진연구기관 방문 기회도 주어진다.

/조기철 기자

남구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광주 남구가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서 광주와 전남 등 호남권 지방자치단체로는 가장 많은 사업이 선정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6일 남구청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남구는 이번 공모에서 생활SOC 복합화 분야에서 총 5건 12개 단위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21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내년부터 사업비 전액을 투입해 가족사랑 나눔센터 건립을 비롯해 효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월산 4동 행정복합센터, 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등 총 5건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병내 구정장은 “앞으로도 정부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마을간 균형발전 및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헬기사격 목격 핵심증인 출석 오늘 광주지법서 전두환 재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중인 전두환씨(88) 공판에 헬기사격을 목격한 핵심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 8단독(판사 장동혁) 심리로 전씨의 7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은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전주교 평신도 이모씨와 시민군 상황실장이던 박남선씨가 증인에 선다. 이 씨는 이날 공판에서 1980년

5월 21일 당시 조 신부와 함께 헬기사격을 목격하게 된 상황 등을 상세히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헬기사격 목격의 신빙성을 입증할 검찰증인도 출석 예정이다. 재판부에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전씨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3월 11일 단, 한마디 사과없이 피고인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해 지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고광민 기자

“손님에게 조용히 하라니?”

도리깨

기를 던지고 소리를 피운 60대가 경찰서형.

○·6일 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마 모씨(62)는 지난 3일 오후 6시 45분께 북구 양암동 장모씨(50·여)의

○·식당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업주를 향해 식

○·이를 조사하던 담당 경찰은 마씨에게 “손님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느냐”면서 “손님이 특권 인냥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

가 운영하는 추어탕 전문점에서 장씨가 조용히 술을 마시라고 말하자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

○·이날 조사하던 담당 경찰은 마씨에게 “손님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느냐”면서 “손님이 특권 인냥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

/이나라 기자

동부 센트레빌,상가

사정상 급매 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1층 상가,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 급매 - ~~9억~~ → 7억원
- 임대 -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350만원

덕남동,임야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 덕남동 임야,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